

다른 조직체들을 만나고 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문서

주의! 절대 공개적인 장소에 펼쳐놓거나
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.
눈에 띄면 끝장이다.

당신은 우리 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협조를 이미 부탁했지요.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문서를 우선 주시구요, (그것 역시 위의 주의사항은 마찬가지임을 우선 숙지!) 차분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줍니다.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면 그냥 바로 제게 연락을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해야 할 일은, 그 각각의 조직체 혹은 모니터오월이 어느 정도까지 해 줄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(예, 1,2번만 해 줄수 있다. 세미나만 하겠다 등)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! 제게 알려주세요.

제가 모든 조직체들을 일일이 만나가며 모든 상황들을 총화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...

여하튼, 그러니까 직접 해 주셔야 하는 일들은,

1. 우선 선거운동 전에 각 단대 상황에 대한 조사입니다. 이것은 한 단대에 여러 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. 이것은 조직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의 의견으로 하는 것입니다.

각 단대/과/반 분위기(여성 운동 등에 대한), 여학생들끼리 모이는 정도나 분위기, 화장실/휴게실 이용 상황, 여성모임/기도모임 등의 여부와 상태(?), 여성학 세미나를 하는지(학회 등에서), 통신 문화는 어떤지, 여성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지 등등

이것은 적어도 수요일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

그리고 강의실 실사가 있네요.

또 하나,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될 모니터 용지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. 조직체들에게 나눠주세요. 주의사항은 언제나와 같습니다.

2.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연서부터 시작해서 조직체들의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. 그래서 리플렛이나 자료집이 나오는 날 이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취해서 그 날 바로바로 조직체들이 들고 가서 주변에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또, 그 상황이 총화가 되어야 합니다.

유세/공약 등에대한 모니터가 되었다거나 주변의 분위기 파악을 한 결과를 원칙적으로는 매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. 별다른 현실 인식 없이는 제대로 된 전술을 짜기가 힘들테니 말이에요. 여하튼, 모니터 결과를 가능하면 매일 수집하고, 제게 알려주거나 저녁 종례시간에 선분 구성원 모두와 공유해야겠지요.

3. 간단한 일정

25~27일	강의실 실사
29일부터	모니터 용지 나갑니다
1~3일	연서, *3일에는 조직체 전체 모임
4일	선분 발족식, 1차 리플렛 배포
8일	자료집 배포
11일	2차 리플렛 배포
15일	참관인 명단 제출